

광양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박차

과수·채소·화훼·특작 분야 등 영농기술 개발 전문교육 활성화

광양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을 활성화한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입해 과수·채소·화훼·특작 분야에 대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과수 분야에서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과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가식물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용약제를 전체 농가에 공급하고, 광양 특산물인 매실에 대한 복숭아씨살아쫄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드론 활용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의 또 다른 특산물인 애호박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용 애호박 고철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을 벌이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사·강우센서 기반 노지 스마트 관수장치를 보급한다.

지역특화 품목 유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생강과 화훼, 취나물 재배단지에는 포장재를 지원한다. 또 전문가가 직접 농장으로 찾아가는 '지역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원예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애호박 수경재배'와 '코렛 호박 수경 실증', '멜론 재배 작형 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남에도 아열대 작목 재배가 활성화하면서 애플망고와 바나나, 참다래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 실증 재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플럼코트, 자두, 포도 등 고소득 작목 발



광양시는 올해 과수·채소·화훼·특작 분야에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입해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 실습 교육 모습(왼쪽)과 지난해 8월 준공한 광양시 과학영농관. <광양시 제공>



광양시 과학영농관. <광양시 제공>

굴도 병행한다. 생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저장 생강 이용 시설 생강 수경재배 실증시험도 추진한다.

광양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정착을 내걸었다.

우선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며 지역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운영 방법과 프로그램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준공된 과학영농관에서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지역 농업인에게 영농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장은 봉강면 시험포장에 있는 본소와 진상면 농업인 상담소에 있는 본소로 나뉜다.

이곳에서 빌려주는 농기계는 115종 969대이다. 임대용 농업기계 중 사고위험성이 높은 63종에 대해서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빌려주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며 5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각종 농기계 수리와 안전 사용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해마다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는 상·하반기에 걸쳐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업대학'은 최근 청년농업반을 신설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 기초 영농기술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인 스톨비즈니스 복합공간과 청년농업인 경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광양시 업체 모집

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모집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상수도 시설·개조·수선 등 급수공사, 긴급 복구공사 등을 대행한다.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 상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 영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상주 시공 기술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장비와 공구 평가 등을 심사해 6월 중 8개의 대행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6월20일부터 2025년 6월19일까지 2년간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각종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 상수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세화 광양시 상수도과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돗물 공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었다

세계차엑스포 성황리에 막 내리 9일간 통합 축제 등 볼거리 풍성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가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세계차엑스포는 보성다향대축제·서편제보성소리축제·보성불꽃축제·별교갯벌 레저별매대회·일림산 철쭉문화행사·전국단위 스포츠대회·군민의 날 등 지역 대표 축제를 통합, 통합 축제형 엑스포 형태로 열렸다.

엑스포 기간인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67만여명이 지역을 다녀갔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개막식 당일에는 고려시대 뇌원차 진상행렬 재연을 시작으로 녹차 새작 퍼포먼스, 블랙이글스 에어쇼, 뮤지컬 싱어즈 개마퍼포먼스, 5000여 명이 함께한 플래시몹 등 화려한 축하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17개사와 보성제다 및 농특산물 9개 업체가 협약을 맺고 미국 등 4개국에 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고의 명차를 선정하는 세계차품평대회·대한민국 티 블렌딩 대회 등에는 전 세계 차 생산 농가에서 제품 80여 개가 출품돼 세계차엑스포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세계차품평대회 ▲녹차 부문 금상에는 오가낙 영농조합법인 ▲황차·정차·홍차 부문 금상에는 몽중산다원 영농조합법인 ▲홍차 부문 금상에는 스키라카 백차 ▲흑차 부문 금상에서는 윤차지방(선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환하게 밝히는 '보성 불꽃축제'가 별교갯벌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보성군 제공>

면금)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차품평대회에서는 ▲녹차 부문 보성 청우다원 ▲발효차 부문에 다체 ▲떡차 부문에 영천다원 ▲말차 부문에는 수광다원이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차박물관 주제관을 비롯해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는 중국·대만·베트남·일본 등 6개국의 세계 차문화 전시관이 설치됐다.

특히 6500년부터 이어진 차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동아시아 차문화 특별전, 세계 티 로드관, 블렌딩

차 품평관, 차 명상 공예관, 보성다원 생태관, 차 만들기 체험관 등 9개의 전시체험관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보성세계차엑스포 김철우 공동조직위원장은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통해 천년을 이어온 보성차의 유구한 역사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통합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고, 세계질 비수기 없는 보성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동네방네 안녕지킴이단' 운영

고령 1인 가구·봉사자 연계

구례군이 고령 1인 가구와 자원 봉사자를 1대 2 연계하는 '동네방네 안녕지킴이단'을 운영한다.

군은 최근 자원봉사자 80명으로 구성된 '동네방네 안녕지킴이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구례군 동네방네 안전지킴이단은 최근 전남도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0만원을 확보하면서 마련됐다.

고령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들의 든

든한 벗이 돼주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80명의 자원봉사자는 고령 1인 가구 등 돌봄 대상자 40명을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돌봄과 함께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한다.

김순호 구례군은 "안녕지킴이단이 소외계층의 든든한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휴일에도 농기계 빌리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6월 4일까지...임차료 50% 감면도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번기를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다.

휴일 임차는 오는 6월4일까지 진행된다.

휴일 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다.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하면 된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홈페이지에 임대 농기계 종류와 기종별 특성을 안내하고 있다.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83기종 15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여수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임차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여수시 주삼동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여수시 제공>

트랙터, 콤팩트, 스카프도 등 대형 농기계는 무료로 운송해준다. 이와 함께 농기계 조작법과 안전 수칙도 교육할 방침이다.

농기계를 빌리고 싶은 농업인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061-659-4466)에 예약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힐링 명소' 재탄생

보랏빛 허브 화단·오션뷰 맛집 카페 조성

봉사와 희생의 상징인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이 다채로운 허브 향기와 탁 트인 오션뷰를 품은 치유 힐링 명소로 재탄생했다.

연수원 입구와 산책로, 기념공원까지 이어지는 곳곳에 로즈마리, 민트, 라벤더 등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수국 등을 식재하는 치유 화단 조성공사를 마쳤다.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은 지난 3월 전남도가 선정한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의 회의 장소인 유니크베뉴 20선에 선정됐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꽃이 활짝 피면 허브 향기 가득한 볼거리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념관 2층 카페 공간을 넓히고 외관을 통유리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부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와 거금대교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한센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듯이, 일상에 지친 연수원 방문객들에게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고흥=주각중 기자 gju@

향기를 품은 볼거리와 바다를 품은 힐링의 시간을 하루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